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10 2015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여호수아 · 사사기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10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기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10

2015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0교구	2 9교구	3 전교인
4 전교인	5 전교인	6 13교구	7 3교구	8 17교구	9 5교구	10 전교인
11 전교인	12 전교인	13 11교구	14 2교구	15 14교구	16 6교구	17 전교인
18 전교인	19 전교인	20 15교구	21 1교구 임직예배 (수요2부예배시)	22 16교구	23 7교구	24 전교인
25 전교인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26 전교인	27 12교구	28 4교구	29 18교구	30 8교구	31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10월 21일

임직예배(수요2부예배시)

10월 25일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10월, 개인 전도 계획

.....

.....

.....

.....

.....

.....

.....

.....

.....

.....

.....

.....

.....

.....

.....

.....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피아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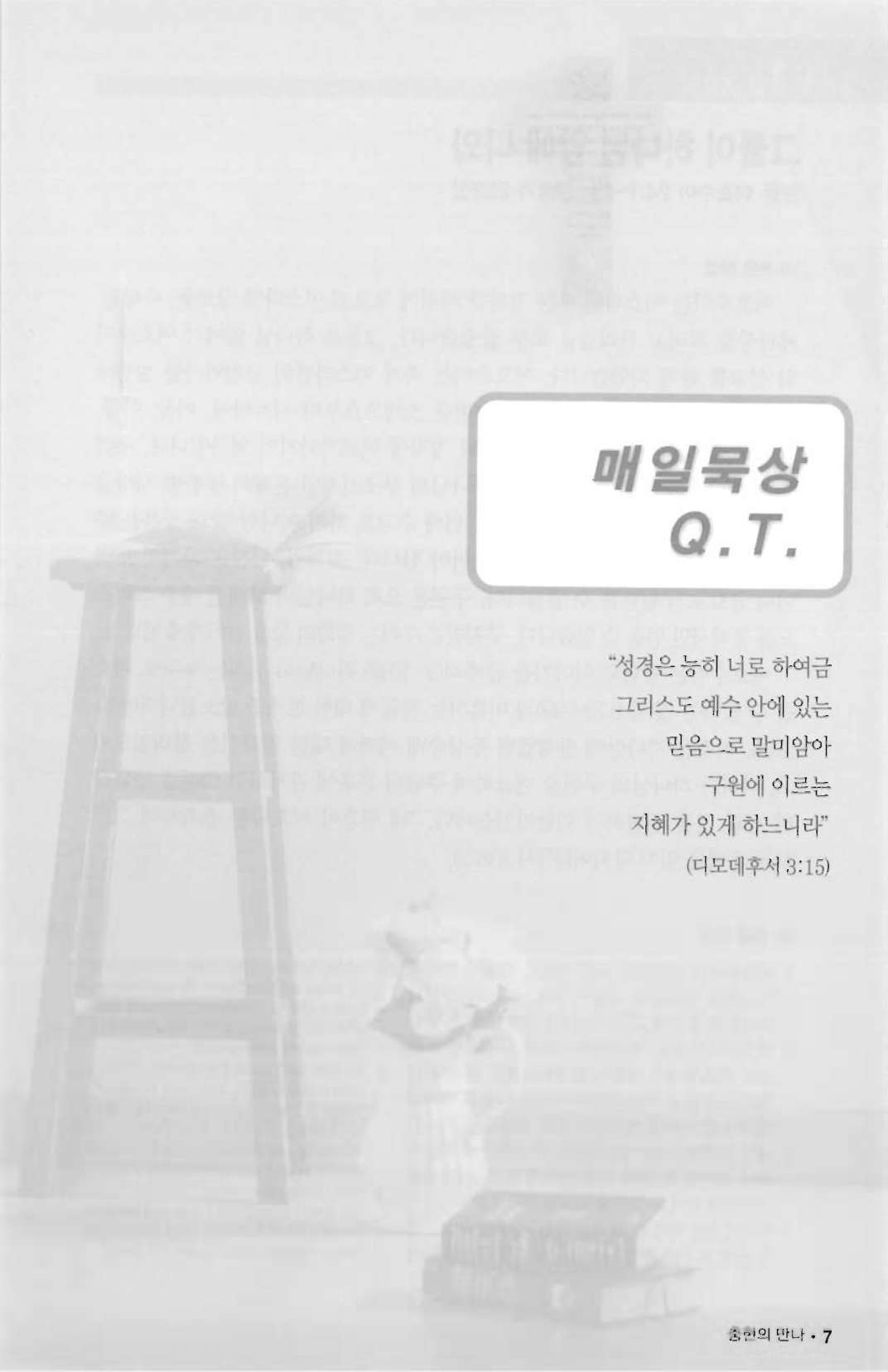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 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으로 이루어 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 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 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 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 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 시고,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 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본문 여호수아 24:1~13 찬송가 282장

>>> 본문 해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겔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였습니다(1~5절). 이는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그리고 출애굽은 물론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기 위해 수고도 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9~10절)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롬 8:35~39)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강조합니다(벧후 2:15). 이것은 가나안에 잔재했던 우상숭배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며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길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 103:2).

>>> 성경 본문

-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겔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 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훔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 3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 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 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

- 1 Then Joshua assembled all the tribes of Israel at Shechem. He summoned the elders, leaders, judges and officials of Israel, and they presented themselves before God.
- 2 Joshua said to all the people,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Long ago your forefathers, including Terah the father of Abraham and Nahor, lived beyond the River and worshiped other gods.
- 3 But I took your father Abraham from the land beyond the River and led him throughout Canaan and gave him many descendants. I gave him Isaac,

굽으로 내려갔으므로

- 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 6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자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 7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 8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 9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 10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 1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 12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 13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다 하였느니라

- 4 and to Isaac I gave Jacob and Esau. I assigned the hill country of Seir to Esau, but Jacob and his sons went down to Egypt.
- 5 " Then I sent Moses and Aaron, and I afflicted the Egyptians by what I did there, and I brought you out.
- 6 When I brought your fathers out of Egypt, you came to the sea, and the Egyptians pursued them with chariots and horsemen as far as the Red Sea.
- 7 But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and he put darkness between you and the Egyptians; he brought the sea over them and covered them. You saw with your own eyes what I did to the Egyptians. Then you lived in the desert for a long time.
- 8 " 'I brought you to the land of the Amorites who lived east of the Jordan. They fought against you, but I gave them into your hands. I destroyed them from before you, and you took possession of their land.
- 9 When Balak son of Zippor, the king of Moab, prepared to fight against Israel, he sent for Balaam son of Beor to put a curse on you.
- 10 But I would not listen to Balaam, so he blessed you again and again, and I delivered you out of his hand.
- 11 " 'Then you crossed the Jordan and came to Jericho. The citizens of Jericho fought against you, as did also the Amorites, Perizzites, Canaanites, Hittites, Girgashites, Hivites and Jebusites, but I gave them into your hands.
- 12 I sent the hornet ahead of you, which drove them out before you--also the two Amorite kings. You did not do it with your own sword and bow.
- 13 So I gave you a land on which you did not toil and cities you did not build; and you live in them and eat from vineyards and olive groves that you did not plant.'

》》 기도 제목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이 삶이 되게 하소서.

24: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중재자만이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감히 말할 수 있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본문 여호수아 24:14~25 찬송가 322장

》》 본문 해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경외하라'(히, '예루',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뜻)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는 곧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당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히, '아바드', 섬기다는 뜻)와 경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제시합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기 싫거든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우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그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된 신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16~17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19절)고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도 다짐하고 고백했건만, 이후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 성경 본문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14 "Now fear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Throw away the gods your forefathers worshiped beyond the River and in Egypt, and serve the LORD.

15 But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then choose for yourselves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your forefathers served beyond the River,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중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중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3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 16 Then the people answered, "Far be it from us to forsake the LORD to serve other gods!
 17 It was the LORD our God himself who brought us and our fathers up out of Egypt, from that land of slavery, and performed those great signs before our eyes. He protected us on our entire journey and among all the nations through which we traveled.
 18 And the LORD drove out before us all the nations, including the Amorites, who lived in the land. We too will serve the LORD, because he is our God."
 19 Joshua said to the people,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He is a holy God; he is a jealous God. He will not forgive your rebellion and your sins.
 20 If you forsake the LORD and serve foreign gods, he will turn and bring disaster on you and make an end of you, after he has been good to you."
 21 But the people said to Joshua, "No! We will serve the LORD."
 22 Then Joshua said, "You are witnesses against yourselves that you have chosen to serve the LORD." "Yes, we are witnesses," they replied.
 23 "Now then," said Joshua, "throw away the foreign gods that are among you and yield your hearts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24 And the people said to Joshua, "We will serve the LORD our God and obey him."
 25 On that day Joshua made a covenant for the people, and there at Shechem he drew up for them decrees and laws.

>>> 기도 제목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24:22 “중언” 조약 또는 언약 체결에서 늘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요소이다.

요셉의 뼈

본문 여호수아 24:26~33 찬송가 254장

》》 본문 해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뒤 그는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것을 큰 증거로 삼았습니다(26~27절). 이 돌의 메시지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겨야 함을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 '여호와와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모든 신자들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롬 14:7~8).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 있던 때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31절).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과 섭리를 직접 들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존했을 때엔 이스라엘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은 관념이나 이성적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장례식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금 100개)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었습니다(32절). 요셉은 죽기 전 자기 유골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줄 것을 유언합니다(창 50:25). 이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관을 메고 나왔고, 성정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히 11:22). 죽음은 한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정착까지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피의 값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성경 본문

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9 이 일 후에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30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담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담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이었던라
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2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3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으매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26 And Joshua recorded these things in the Book of the Law of God. Then he took a large stone and set it up there under the oak near the holy place of the LORD.
27 "See!" he said to all the people. "This stone will be a witness against us. It has heard all the words the LORD has said to us. It will be a witness against you if you are untrue to your God."
28 Then Joshua sent the people away, each to his own inheritance.
29 After these things, Joshua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at the age of a hundred and ten.
30 And they buried him in the land of his inheritance, at Timnath Serah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orth of Mount Gaash.
31 Israel served the LORD throughout the lifetime of Joshua and of the elders who outlived him and who had experienced everything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32 And Joseph's bones, which the Israelites had brought up from Egypt, were buried at Shechem in the tract of land that Jacob bought for a hundred pieces of silver from the sons of Hamor, the father of Shechem. This became the inheritance of Joseph's descendants.
33 And Eleazar son of Aaron died and was buried at Gibeah, which had been allotted to his son Phinehas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 기도 제목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나와 우리 가정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1) 크시타는 옛 무게 단위로써 정확한 중량은 불분명함

24-26 "하나님의 율법책"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율례와 법도의 목록으로 보인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본문 사사기 1:1~10 찬송가 382장

>>> 본문 해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떤 지도자도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에 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1절). 이 질문에서는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불안이 묻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답하셔서,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2절). 이에 유다는 친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두 지파가 함께 갑니다(3절).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4~5절) 베섹을 정복합니다. 그들은 도망하는 아도니 베섹을 잡아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6절). 여기에는 그가 그동안 저질렀던 잔인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왕의 잔인한 행위를 유다가 똑같이 따라한 것으로 볼 때, 유다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선물로 주셔서 취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성경 본문

-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 3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 4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이고
- 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 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 7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줌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 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 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 10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였더라

- 1 After the death of Joshua, the Israelites asked the LORD, "Who will be the first to go up and fight for us against the Canaanites?"
- 2 The LORD answered, "Judah is to go; I have given the land into their hands."
- 3 Then the men of Judah said to the Simeonites their brothers, "Come up with us into the territory allotted to us,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We in turn will go with you into yours." So the Simeonites went with them.
- 4 When Judah attacked, the LORD gave the Canaanites and Perizzites into their hands and they struck down ten thousand men at Bezek.
- 5 It was there that they found Adoni-Bezek and fought against him, putting to rout the Canaanites and Perizzites.
- 6 Adoni-Bezek fled, but they chased him and caught him, and cut off his thumbs and big toes.
- 7 Then Adoni-Bezek said, "Seventy kings with their thumbs and big toes cut off have picked up scraps under my table. Now God has paid me back for what I did to them." They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he died there.
- 8 The men of Judah attacked Jerusalem also and took it. They put the city to the sword and set it on fire.
- 9 After that, the men of Judah went down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living in the hill country, the Negev and the western foothills.
- 10 They advanced against the Canaanites living in Hebron (formerly called Kiriath Arba) and defeated Sheshai, Ahiman and Talmai.

》》 기도 제목

이미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16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전쟁 포로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흔한 풍습이었다. 무기를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 참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철 병거가 있으므로

본문 사사기 1:11~21 찬송가 354장

》》 본문 해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은 사사기의 열두 사사 중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13절). 그는 드빌을 쳐서 점령했으며 이를 통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은 적이 있습니다.

16~21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이 유다 지파에 합류하여 유다-시므온 지파의 연합 정복 전쟁에 참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바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진멸)'라고 부릅니다. 18절은 유다가 블레셋 지역 일부를 정복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19절은 유다 지파가 산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격퇴하였으나 철 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은 격퇴하지 못했음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이 철 병거를 통해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선진 무기와 견고한 방어 체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서도 현실적 이유로 인한 타협이 서서히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철 병거 때문에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은 피상적인 이유일 뿐이며,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이 이 타협의 실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경우 여부스 족속이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1절). 이는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그들과 공존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은 커다란 고통이라는 대가로 돌아옵니다. 그 타협은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힘껏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죄와 힘써 싸우며 하나님 안에서의 성화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성경 본문

- 11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 12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 13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 14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 15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 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 17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 18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 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 20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 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 11 From there they advanced against the people living in Debir (formerly called Kiriath Sepher).
- 12 And Caleb said, "I will give my daughter Acsah in marriage to the man who attacks and captures Kiriath Sepher."
- 13 Othniel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took it; so Caleb gave his daughter Acsah to him in marriage.
- 14 One day when she came to Othniel, she urged him to ask her father for a field. When she got off her donkey, Caleb asked her, "What can I do for you?"
- 15 She replied, "Do me a special favor. Since you have given me land in the Negev, give me also springs of water." Then Caleb gave her the upper and lower springs.
- 16 The descendants of Moses' father-in-law, the Kenite, went up from the City of Palms with the men of Judah to live among the people of the Desert of Judah in the Negev near Arad.
- 17 Then the men of Judah went with the Simeonites their brothers and attacked the Canaanites living in Zephath, and they totally destroyed the city. Therefore it was called Hormah.
- 18 The men of Judah also took Gaza, Ashkelon and Ekron--each city with its territory.
- 19 The LORD was with the men of Judah. They took possession of the hill country, but they were unable to drive the people from the plains, because they had iron chariots.
- 20 As Moses had promised, Hebron was given to Caleb, who drove from it the three sons of Anak.
- 21 The Benjamites, however, failed to dislodge the Jebusites, who were living in Jerusalem; to this day the Jebusites live there with the Benjamites.

» 기도 제목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는 오늘이 삶이 되게 하소서.

1)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을 뜻함

1:19 "철 병거" 특정한 부분, 특히 차축이 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무로 되어 있는 운송 수단.

쫓아내지 못하매

본문 사사기 1:22~36 찬송가 278장

>>> 본문 해설

22~26절은 요셉 지파의 베엘 정복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서처럼 내부 정탐꾼을 활용하여 루스성(베엘)을 손쉽게 정복합니다. 이어지는 27~36절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정착한 지파들의 분투와 좌절을 그려줍니다. 특히 27~33절에서는 매 구절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의 관습인 강제 노역을 도입합니다(28절). 노역을 시키는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로 넘어가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행위의 주체로 제시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이 행위의 주체로 제시됩니다. 거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 지파를 쫓아냅니다.

불순종은 처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붙잡으려 할 때 자라납니다.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깊은 골짜기로 이어집니다.

>>> 성경 본문

- 22 요셉 가문도 베엘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3 요셉 가문이 베엘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24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25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니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26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

- 22 Now the house of Joseph attacked Bethel, and the LORD was with them.
 23 When they sent men to spy out Bethel (formerly called Luz),
 24 the spies saw a man coming out of the city and they said to him, "Show us how to get into the city and we will see that you are treated well."
 25 So he showed them, and they put the city to the sword but spared the man and his whole family.
 26 He then went to the land of the Hittites, where he built a city and called it Luz, which is its name to this day.

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 곳의 이름이 되니라

27 므낫세가 뱌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 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 납달리는 벵세메스 주민과 뱌나앗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벵세메스와 뱌나앗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5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36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던라

27 But Manasseh did not drive out the people of Beth Shan or Taanach or Dor or Ibleam or Megiddo and their surrounding settlements, for the Canaanites were determined to live in that land.

28 When Israel became strong, they pressed the Canaanites into forced labor but never drove them out completely.

29 Nor did Ephraim drive out the Canaanites living in Gezer, but the Canaanites continued to live there among them.

30 Neither did Zebulun drive out the Canaanites living in Kitron or Nahalol, who remained among them; but they did subject them to forced labor.

31 Nor did Asher drive out those living in Acco or Sidon or Ahlab or Aczib or Helbah or Aphek or Rehob,

32 and because of this the people of Asher lived among the Canaanite inhabitants of the land.

33 Neither did Naphtali drive out those living in Beth Shemesh or Beth Anath; but the Naphtalites too lived among the Canaanite inhabitants of the land, and those living in Beth Shemesh and Beth Anath became forced laborers for them.

34 The Amorites confined the Danites to the hill country, not allowing them to come down into the plain.

35 And the Amorites were determined also to hold out in Mount Heres, Aijalon and Shaalvim, but when the power of the house of Joseph increased, they too were pressed into forced labor.

36 The boundary of the Amorites was from Scorpion Pass to Sela and beyond.

» 기도 제목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134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아모리 족속은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패한 적이 있지만 단지파를 압박할 만큼은 강했다. 이런 이유로 삼당수의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본문 사사기 2:1~10 찬송가 523장

》》 본문 해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그러한 불순종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와의 사자를 통해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3절).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종족 간의 문제가 아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김에서 울며 제사를 드립니다(4절). 그러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감정적인 모임과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6~8절에 소개된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암울한 역사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언급됩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치열하고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게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합니다.

>>> 성경 본문

- 1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 2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 4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 5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킴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 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 8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예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담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 1 The angel of the LORD went up from Gilgal to Bokim and said, "I brought you up out of Egypt and led you into the land that I swore to give to your forefathers. I said,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 2 and you shall not make a covenant with the people of this land, but you shall break down their altars.' Yet you have disobeyed me. Why have you done this?
- 3 Now therefore I tell you that I will not drive them out before you; they will be thorns in your sides and their gods will be a snare to you."
- 4 When the angel of the LORD had spoken these things to all the Israelites, the people wept aloud,
- 5 and they called that place Bokim. There they offered sacrifices to the LORD.
- 6 After Joshua had dismissed the Israelites, they went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each to his own inheritance.
- 7 The people served the LORD throughout the lifetime of Joshua and of the elders who outlived him and who had seen all the great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 8 Joshua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at the age of a hundred and ten.
- 9 And they buried him in the land of his inheritance, at Timnath Heres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orth of Mount Gaash.
- 10 After that whole generation had been gathered to their fathers, another generation grew up, who knew neither the LORD nor what he had done for Israel.

>>> 기도 제목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1) 우는 자들

210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들은 여호와와 하신 일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다.

사사들을 세우사

본문 사사기 2:11~23 찬송가 290장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을 그립니다. 또 여기에서는 사사기의 특징적 구조인 배교(11~13절)-심판(14~15절)-회개(18절)-구원(18절)의 틀이 전반적으로 요약 제시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사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근의 뜻은 '재판하다'입니다. 하지만 사사는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 주신 '군사적인' 구원자였습니다(16절, 18절). 사사를 통한 구원은 본질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었으며, 이러한 구원이 주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22절).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심판 받지만, 그 심판 속에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임이 이야기됩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됩니다.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사사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 있는 믿음과 순종의 소멸, 우상 숭배와 세속화, 세속주의적 세력과의 공존과 제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 성경 본문

-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 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 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 11 The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 12 They forsook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who had brought them out of Egypt. They followed and worshiped various gods of the peoples around them. They provoked the LORD to anger
- 13 because they forsook him and served Baal and the Ashtoreths.
- 14 In his anger against Israel the LORD handed them over to raiders who

-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 15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 16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 17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 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느니라
- 19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 21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 22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 23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 plundered them. He sold them to their enemies all around, whom they were no longer able to resist.
- 15 Whenever Israel went out to fight,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m to defeat them, just as he had sworn to them. They were in great distress.
- 16 Then the LORD raised up judges, who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se raiders.
- 17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but prostituted themselves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Unlike their fathers, they quickly turned from the way in which their fathers had walked, the way of obedience to the LORD's commands.
- 18 Whenever the LORD raised up a judge for them, he was with the judge and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s long as the judge lived; for the LORD had compassion on them as they groaned under those who oppressed and afflicted them.
- 19 But when the judge died, the people returned to ways even more corrupt than those of their fathers, following other gods and serving and worshiping them. They refused to give up their evil practices and stubborn ways.
- 20 Therefore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Israel and said, "Because this nation has violated the covenant that I laid down for their forefathers and has not listened to me,
- 21 I will no longer drive out before them any of the nations Joshua left when he died.
- 22 I will use them to test Israel and see whether they will keep the way of the LORD and walk in it as their forefathers did."
- 23 The LORD had allowed those nations to remain; he did not drive them out at once by giving them into the hands of Joshua.

》》 기도 제목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이 삶이 되게 하소서.

218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를 묘사하는 언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본문 사사기 3:1~11 찬송가 304장

》》 본문 해설

1~6절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 두신 가나안 원주민들을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여호수아 사후 세대의 하나님의 명령(계약 금지와 제단 파괴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를 알고자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당히 남겨 두신 것입니다(1~2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겼습니다(6절).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고,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이스라엘이 그를 8년 동안 섬기게 하셨습니다(8절).

이스라엘은 힘겨운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9절).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에 옷니엘(1:11~13)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10절). 그리고 40년간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11절).

우리가 구원을 호소할 때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 성경 본문

-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거 두신 이방 민족들은
- 3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 4 남거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 6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 10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 11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

- 1 These are the nations the LORD left to test all those Israelites who had not experienced any of the wars in Canaan
- 2 (he did this only to teach warfare to the descendants of the Israelites who had not had previous battle experience):
- 3 th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all the Canaanites, the Sidonians, and the Hivites living in the Lebanon mountains from Mount Baal Hermon to Lebo Hamath.
- 4 They were left to test the Israelites to see whether they would obey the LORD's commands, which he had given their forefathers through Moses.
- 5 The Israelites lived among the Canaanites, Hittites, Amorites, Perizzites, Hivites and Jebusites.
- 6 They took their daughters in marriage and gave their own daughters to their sons, and served their gods.
- 7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erahs.
- 8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so that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Cushan-Rishathaim king of Aram Naharaim, to whom the Israelites were subject for eight years.
- 9 But w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he raised up for them a deliverer, Othniel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who saved them.
- 10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so that he became Israel's judge and went to war. The LORD gave Cushan-Rishathaim king of Aram into the hands of Othniel, who overpowered him.
- 11 So the land had peace for forty years, until Othniel son of Kenaz died.

>>> 기도 제목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1) 히, 아람 나하리임

32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스라엘은 언약의 종으로 하나님의 땅 안에 정착한 세상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여호와와의 군대였다. 가나안 땅 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의 후속 세대는 유능한 전사가 되어야 했다.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본문 사사기 3:12~31 찬송가 383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12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하셨습니다(14절).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 한 명의 구원자(사사)를 준비하십니다(15절).

본문은 두 명의 사사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에훗(12~30절)과 삼갈(31절)입니다. 이 두 사사 모두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웃니엘과 같은 모범생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분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15절).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베냐민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표현이 나란히 사용된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오른손의 사람'인 에훗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베냐민 지파가 왼손 저격수를 양성하기 위해 오른손을 묶어 놓고 왼손만 쓰도록 훈련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볼 때, 숙련된 저격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새 번째 사사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사용한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런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입견은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기로 힘을 과시하는 세상 앞에서, 가장 불품없는 나무 막대기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 성경 본문

- 12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라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3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 12 Once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because they did this, evil the LORD gave Eglon king of Moab power over Israel.
13 Getting the Ammonites and Amalekites to join him, Eglon came and attacked Israel, and they took possession of the City of Palms.

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얻어엿던 해 동안 섬기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원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6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반은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 속에 차고
 17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18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20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21 에훗이 원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갈날에 엉겼더라
 23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24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²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25 그들이 ³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보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26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리로 도망하니라
 27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28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 그 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31 에훗 후에는 아낏의 아들 삼갑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14 The Israelites were subject to Eglon king of Moab for eighteen years.
 15 Agai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the LORD, and he gave them a deliverer—Ehud, a left-handed man, the son of Gera the Benjamite. The Israelites sent him with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16 Now Ehud had made a double-edged sword about a foot and a half long, which he strapped to his right thigh under his clothing.
 17 He presented the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who was a very fat man.
 18 After Ehud had presented the tribute, he sent on their way the men who had carried it.
 19 At the idols near Gilgal he himself turned back and said,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O king." The king said, "Quiet!" And all his attendants left him.
 20 Ehud then approached him while he was sitting alone in the upper room of his summer palace and said, "I have a message from God for you." As the king rose from his seat,
 21 Ehud reached with his left hand, drew the sword from his right thigh and plunged it into the king's belly.
 22 Even the handle sank in after the blade, which came out his back. Ehud did not pull the sword out, and the fat closed in over it.
 23 Then Ehud went out to the porch; he shut the doors of the upper room behind him and locked them.
 24 After he had gone, the servants came and found the doors of the upper room locked. They said, "He must be relieving himself in the inner room of the house."
 25 They waited to the point of embarrassment, but when he did not open the doors of the room, they took a key and unlocked them. There they saw their lord fallen to the floor, dead.
 26 While they waited, Ehud got away. He passed by the idols and escaped to Seirah.
 27 When he arrived there, he blew a trumpet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Israelites went down with him from the hills, with him leading them.
 28 "Follow me," he ordered, "for the LORD has given Moab, your enemy, into your hands." So they followed him down and, taking possession of the fords of the Jordan that led to Moab, they allowed no one to cross over.
 29 At that time they struck down about ten thousand Moabites, all vigorous and strong; not a man escaped.
 30 That day Moab was made subject to Israel, and the land had peace for eighty years.
 31 After Ehud came Shamgar son of Anath, who struck down six hundred Philistines with an oxgoad. He too saved Israel.

» 기도 제목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오늘이 삶이 되게 하소서.

1) 히, 암마 2) 용변을 보신다 3)히, 부끄러울 때까지

3:15 "원손잡이" 원손잡이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매우 많았다. 역설적으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다. 에훗도 원손잡이었기에 칼을 예기치 못한 곳에 숨겨서 사용할 수 있었다.

네 손에 넘겨주리라

본문 사사기 4:1~16 찬송가 251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징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습니다.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당해낼 힘이 없어 20년간 꺾박당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2절). 이때 랍비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드보라에게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재(골 1:25)로 바락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여호와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탓에 영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7~9절). 이후 여호와께서는 철병거가 기손강에 모였을 때 집중호우를 쏟으셔서 그들을 표류시키셨습니다(5:20~21절). 결국 군대장관 시스라를 제외한 모든 군대가 완전히 전멸 당하였습니다(16절).

여호와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심은 바락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삼상 17:11)하고 있을 때, 주께서 소년 다윗을 들어서 역사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대적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음과,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 성경 본문

- 1 에후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 2 여호와께서 히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교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 3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 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 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 1 After Ehud died, the Israelites once again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 2 So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s of Jabin, a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Sisera, who lived in Harosheth Haggoyim.
- 3 Because he had nine hundred iron chariots and had cruelly oppressed the Israelites for twenty years,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 4 Deborah, a prophetess, the wife of Lappidoth, was leading Israel at that time.
- 5 She held court under the Palm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Israelites came to her to have their disputes decided.

6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계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로 가라

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 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계데스로 가니라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계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1 모세의 "장인" 호박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계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하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

15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하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앞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6 She sent for Barak son of Abinoam from Kedesh in Naphtali and said to him,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s you: 'Go, take with you ten thousand men of Naphtali and Zebulun and lead the way to Mount Tabor.

7 I will lure Sisera, the commander of Jabin's army,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to the Kishon River and give him into your hands.'"

8 Barak said to her, "If you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don't go with me, I won't go."

9 "Very well," Deborah said, "I will go with you. But because of the way you are going about this, the honor will not be yours, for the LORD will hand Sisera over to a woman." So Deborah went with Barak to Kedesh,

10 where he summoned Zebulun and Naphtali. Ten thousand men followed him, and Deborah also went with him.

11 Now Heber the Kenite had left the other Kenites, the descendants of Hobab, Moses' brother-in-law, and pitched his tent by the great tree in Zaanannim near Kedesh.

12 When they told Sisera that Barak son of Abinoam had gone up to Mount Tabor,

13 Sisera gathered together his nine hundred iron chariots and all the men with him, from Harosheth Haggoyim to the Kishon River.

14 Then Deborah said to Barak, "Go!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given Sisera into your hands. Has not the LORD gone ahead of you?" So Barak went down Mount Tabor, followed by ten thousand men.

15 At Barak's advance, the LORD routed Sisera and all his chariots and army by the sword, and Sisera abandoned his chariot and fled on foot.

16 But Barak pursued the chariots and army as far as Harosheth Haggoyim. All the troops of Sisera fell by the sword; not a man was left.

》》 기도 제목

나의 작은 능력과 힘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1) 히. 처남이란 뜻도 있음 2) 민 10:29를 보라

4:15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 구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홍해의 애굽인들과 미스바의 블레셋인들에게 임했던 무서운 공포를 가리키는데 쓰였던 용어이다.

굴복하게 하신지라

본문 사사기 4:17~24 찬송가 357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와 구원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모든 군대가 전멸당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은 이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위대한 군인 시스라는 한 여인에 의하여 '말뚝'에 박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자였던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구원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철 병거 900승과 시스라를 이겼습니다(삼상 17:47~49)!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습니다(24절).

과거에 요셉 자손들은 철 병거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수 17:16). 유다 지파도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1:1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사사 드보라는 900승이라는 엄청난 철 병거를 가진 시스라를 진멸시켰습니다. 기손강에서 시스라의 병거를 표류시키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5:20~21절). 시스라를 여인 야엘에게 파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9절). 이렇듯 주님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반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 성경 본문

- 17 시스라가 질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술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 18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 19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 20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물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 21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 22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 23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 17 Sisera, however, fled on foot to the tent of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because there were friendly relations between Jabin king of Hazor and the clan of Heber the Kenite.
- 18 Jael went out to meet Sisera and said to him, "Come, my Lord, come right in. Don't be afraid." So he entered her tent, and she put a covering over him.
- 19 "I'm thirsty," he said. "Please give me some water." She opened a skin of milk, gave him a drink, and covered him up.
- 20 "Stand in the doorway of the tent," he told her. "If someone comes by and asks you, 'Is anyone here?' say 'No.'"
- 21 But Jael, Heber's wife, picked up a tent peg and a hammer and went quietly to him while he lay fast asleep, exhausted. She drove the peg through his temple into the ground, and he died.
- 22 Barak came by in pursuit of Sisera, and Jael went out to meet him. "Come," she said, "I will show you the man you're looking for." So he went in with her, and there lay Sisera with the tent peg through his temple-dead.
- 23 On that day God subdued Jabin, the Canaanite king, before the Israelites.
- 24 And the hand of the Israelites grew stronger and stronger against Jabin, the Canaanite king, until they destroyed him.

>>> 기도 제목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예에 합심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4:18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고대 근동 아시아의 풍습에 따르면 남편이나 아버지 외에는 어떤 남자라도 여인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야엘은 시스라에게 가장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본문 사사기 5:1~16 찬송가 298장

》》 본문 해설

본 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첫 마디는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영솔자(장수)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것은 백성 스스로의 힘이 아닌 여호와와 일하심 덕분입니다. 노래는 이 점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13절)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와 행사가 칭송됩니다(4~5절). 드보라와 바락은 자신들을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뒤 그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참담한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하고(6~7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정확히 지적합니다(8절). 9~13절은 그런 절망적인 때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중심적인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9절), “전파할지어다”(10절),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11절)고 우리를 향해 거듭 촉구합니다.

》》 성경 본문

- 1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 2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 3 너희 왕들이 들으라 통치자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 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 6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 1 On that day Deborah and Barak son of Abinoam sang this song:
- 2 "When the princes in Israel take the lead, when the people willingly offer themselves-- praise the LORD!
- 3 "Hear this, you kings! Listen, you rulers! I will sing to the LORD, I will sing; I will make music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 4 "O LORD, when you went out from Seir, when you marched from the land of Edom, the earth shook, the heavens poured, the clouds poured down water.
- 5 The mountains quaked before the LORD, the One of Sinai, before the LORD, the God of Israel.

7 이스라엘에는 마을 ¹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
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
다
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
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
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
하라
10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
하는 자들이 전파할지이다
11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은
곳에서도 여호와와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
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
하라 그 때에 여호와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12 깰지이다 깰지이다 드보라여 깰지이다 깰지이다
너는 노래할지이다 일어날지이다 바락이여 아비
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
다
13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14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
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²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15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잇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
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나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6 "In the days of Shamgar son of Anath,
in the days of Jael, the roads were
abandoned; travelers took to winding
paths.
7 Village life in Israel ceased, ceased
until I, Deborah, arose, arose a mother
in Israel.
8 When they chose new gods, war
came to the city gates, and not a
shield or spear was seen among forty
thousand in Israel.
9 My heart is with Israel's princes, with
the willing volunteers among the
people. Praise the LORD!
10 "You who ride on white donkeys,
sitting on your saddle blankets, and
you who walk along the road,
consider
11 the voice of the singers at the
watering places. They recite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 the
righteous acts of his warriors in Israel.
"Then the people of the LORD went
down to the city gates.
12 'Wake up, wake up, Deborah! Wake
up, wake up, break out in song! Arise,
O Barak! Take captive your captives,
O son of Abinoam.'
13 "Then the men who were left came
down to the nobles; the people of the
LORD came to me with the mighty.
14 Some came from Ephraim, whose
roots were in Amalek; Benjamin was
with the people who followed you.
From Makir captains came down,
from Zebulun those who bear a
commander's staff.
15 The princes of Issachar were with
Deborah; yes, Issachar was with
Barak, rushing after him into the
valley. In the districts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16 Why did you stay among the
campfires to hear the whistling for the
flocks? In the districts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 기도 제목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찾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1) 또는 지도자들이 2) 히, 기록하는 자의

56 "대로가 비었고" 적들의 수비대와 악탈군으로 인해 길들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본문 사사기 5:17~31 찬송가 249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20절) 이 구절은 시적인 묘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은 근본적으로 우주적인 전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출정하시는 전쟁에 천사나 별들이 관망만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수 10:12~14, 계 12:7~9)?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21절). 이 표현과 관련하여 여호와를 도울 수 있었음에도 돕지 않음으로 거듭 저주를 당하게 된 메로스 거민들(23절)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를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눅 12:47)라는 주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하는 ‘더욱 복을 받을 여인’인 야엘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24절). 야엘은 이방인이었지만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마쳐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31절). 함께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 합시다.

» 성경 본문

17 길랴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허찌 됨이나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18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라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19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모깃도 물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온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손 강은 햇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17 Gilead stayed beyond the Jordan. And Dan, why did he linger by the ships? Asher remained on the coast and stayed in his coves.
18 The people of Zebulun risked their very lives; so did Naphtali on the heights of the field.
19 "Kings came, they fought; the kings of Canaan fought at Taanach by the waters of Megiddo, but they carried off no silver, no plunder.
20 From the heavens the stars fought, from their courses they fought against

22 그 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23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꿰뚫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27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려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29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30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31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Sisera.

21 The river Kishon swept them away, the age-old river, the river Kishon. March on, my soul; be strong!
 22 Then thundered the horses' hoofs--galloping, galloping go his mighty steeds.
 23 'Curse Meroz,' said the angel of the LORD. 'Curse its people bitterly, because they did not come to help the LORD, to help the LORD against the mighty.'
 24 "Most blessed of women be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most blessed of tent-dwelling women.
 25 He asked for water, and she gave him milk; in a bowl fit for nobles she brought him curdled milk.
 26 Her hand reached for the tent peg, her right hand for the workman's hammer. She struck Sisera, she crushed his head, she shattered and pierced his temple.
 27 At her feet he sank, he fell; there he lay. At her feet he sank, he fell; where he sank, there he fell-dead.
 28 "Through the window peered Sisera's mother; behind the lattice she cried out, 'Why is his chariot so long in coming? Why is the clatter of his chariots delayed?'
 29 The wisest of her ladies answer her; indeed, she keeps saying to herself,
 30 'Are they not finding and dividing the spoils: a girl or two for each man, colorful garments as plunder for Sisera, colorful garments embroidered, highly embroidered garments for my neck-- all this as plunder?'
 31 "So may all your enemies perish, O LORD! But may they who love you be like the sun when it rises in its strength." Then the land had peace forty years.

》 기도 제목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5: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늘의 권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본문 사사기 6:1~10 찬송가 259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이 악을 범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징벌하셨고 다시 저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6절). 이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 구원자(3:9, 15)’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은거할 수 밖에 없었고, 산성을 쌓아 미디안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2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출 12:51), 지금 이스라엘을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2:12).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기시키셨습니다(8~9절, 출 6:6~7).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9절). 세 번째로 주님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거절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장에서 ‘여호와와 사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2:1~2). 멸망에 이르는 근원적인 죄는 윤리적인 죄나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 성경 본문

-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 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 3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 4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 5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 6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 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 9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 10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 1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for seven years he gave them into the hands of the Midianites.
- 2 Because the power of Midian was so oppressive, the Israelites prepared shelters for themselves in mountain clefts, caves and strongholds.
- 3 Whenever the Israelites planted their crops, the Midianites, Amalekites and other eastern peoples invaded the country.
- 4 They camped on the land and ruined the crops all the way to Gaza and did not spare a living thing for Israel, neither sheep nor cattle nor donkeys.
- 5 They came up with their livestock and their tents like swarms of locusts. It was impossible to count the men and their camels; they invaded the land to ravage it.
- 6 Midian so impoverished the Israelites that they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 7 When the Israelites cried to the LORD because of Midian,
- 8 he sent them a prophet, who sai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brought you up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 9 I snatched you from the power of Egypt and from the hand of all your oppressors. I drove them from before you and gave you their land.
- 10 I said to you, 'I am the LORD your God; do not worship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live.' But you have not listened to me."

》》 기도 제목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6:5 “낙타” 전쟁에서 낙타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첫 번째 언급.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본문 사사기 6:11~24 찬송가 382장

》》 본문 해설

여호와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11~12절).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약하고 약한 자에 불과했습니다(1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거기에 그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있었습니다(16절, 출 3:12; 14:14, 수 23:3).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를 큰 용사로 변화시켰습니다(롬 9:16).

본문은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기드온이 싸워야 할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과 동일 선상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싸우시는 총사령관은 언제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태운 뒤 떠났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와의 사자를 대면했기에 죽게 될까 염려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친히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 앞에서 떠났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하시는 그분의 또렷한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려왔습니다(23절).

》》 성경 본문

11 여호와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프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러 하여 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 여호와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대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대 하니

11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 down under the oak in Ophrah that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where his son Gideon was threshing wheat in a winepress to keep it from the Midianites.
12 W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Gideon, he said,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13 "But sir," Gideon replied, "if the LORD is with us, why has all this happened to us? Where are all his wonders that our fathers told us about when they said, 'Did not the LORD bring us up out of Egypt?' But now the LORD has abandoned us and put us into the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까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19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예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hand of Midian."

14 The LORD turned to him and said, "Go in the strength you have and save Israel out of Midian's hand. Am I not sending you?"

15 "But Lord," Gideon asked, "how can I save Israel?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mily."

16 The LORD answered, "I will be with you, and you will strike down all the Midianites together."

17 Gideon replied,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give me a sign that it is really you talking to me."

18 Please do not go away until I come back and bring my offering and set it before you." And the LORD said, "I will wait until you return."

19 Gideon went in, prepared a young goat, and from an ephah of flour he made bread without yeast. Putting the meat in a basket and its broth in a pot, he brought them out and offered them to him under the oak.

20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Take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place them on this rock, and pour out the broth." And Gideon did so.

21 With the tip of the staff that was in his hand, the angel of the LORD touch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Fire flared from the rock, consuming the meat and the bread. And the angel of the LORD disappeared.

22 When Gideon realized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he exclaimed, "Ah, Sovereign LORD! I have seen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23 But the LORD said to him, "Peace! Do not be afraid. You are not going to die."

24 So Gideon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re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 To this day it stands in Ophrah of the Abiezrites.

》》 기도 제목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1) 여호와는 평강이라

6:12 "큰 용사여" 15절에서 기드온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상류층이거나 귀족이었을 것이다. (27절 참조)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본문 사사기 6:25~40 찬송가 214장

» 본문 해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25절). 이 날 밤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규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입니다(25~26절). 규레(출 20:24~25; 신 27:5~6)대로 다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실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참부할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레나 율법의 가미(철 연장으로 다듬어 야)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낮에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 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나약성이 드러납니다(27절). 기드온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약한 존재였습니다(8:27, 33). 그러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버린 기드온은 죽지 않았고 그가 나팔을 부니 많은 지파들이 그를 좇았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신분으로 보아 기적 같은 일입니다(34~35절). 이 일은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33절).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치십니다.

» 성경 본문

25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칠 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26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8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25 That same night the LORD said to him, "Take the second bull from your father's herd, the one seven years old. Tear down your father's altar to Baal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 beside it.

26 Then build a proper kind of altar to the LORD your God on the top of this height. Using the wood of the Asherah pole that you cut down, offer the second bull as a burnt offering."

27 So Gideon took ten of his servants and did as the LORD told him. But because he was afraid of his family and the men of the town, he did it at night rather than in the daytime.

28 In the morning when the men of the town got up, there was Baal's altar, demolished, with the Asherah pole

29 캐어 묻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 성을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투는 것이니라 하니라
 32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는 것이라 함이었더라
 33 그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5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아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주여 내게 도하지 마음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beside it cut down and the second bull sacrificed on the newly built altar!
 29 They asked each other, "Who did this?" When they carefully investigated, they were told, "Gideon son of Joash did it."
 30 The men of the town demanded of Joash, "Bring out your son. He must die, because he has broken down Baal's altar and cut down the Asherah pole beside it."
 31 But Joash replied to the hostile crowd around him, "Are you going to plead Baal's cause? Are you trying to save him? Whoever fights for him shall be put to death by morning! If Baal really is a god, he can defend himself when someone breaks down his altar."
 32 So that day they called Gideon "Jerub-Baal," saying, "Let Baal contend with him," because he broke down Baal's altar.
 33 Now all the Midianites, Amalekites and other eastern peoples joined forces and crossed over the Jordan and camped in the Valley of Jezreel.
 34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Gideon, and he blew a trumpet, summoning the Abiezrites to follow him.
 35 He sent messengers throughout Manasse, calling them to arms, and also into Asher, Zebulun and Naphtali, so that they too went up to meet them.
 36 Gideon said to God, "If you will save Israel by my hand as you have promised-
 37 look, I will place a wool fleece on the threshing floor. If there is dew only on the fleece and all the ground is dry, then I will know that you will save Israel by my hand, as you said."
 38 And that is what happened. Gideon rose early the next day; he squeezed the fleece and wrung out the dew--a bowlful of water.
 39 Then Gideon said to God, "Do not be angry with me. Let me make just one more request. Allow me one more test with the fleece. This time make the fleece dry and the ground covered with dew."
 40 That night God did so. Only the fleece was dry; all the ground was covered with dew.

»» 기도 제목

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6:30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위해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할 만큼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신 13:6~10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본문 사사기 7:1~14 찬송가 92장

>>> 본문 해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수는 모두 3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군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2절).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만 2천명이 떠나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3절).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원이 많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손으로 물을 떠서 훔아 먹는 삼백 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은 그 300명은 경각심이 있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수를 뽑고자 한 것입니다. 양측이 서로 반대로 행동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적은 수를 뽑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 성경 본문

-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던라
- 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 1 Early in the morning, Jerub-Baal (that is, Gideon) and all his men camped at the spring of Harod. The camp of Midian was north of them in the valley near the hill of Moreh.
- 2 The LORD said to Gideon, "You have too many men for me to deliver Midian into their hands. In order that Israel may not boast against me that her own strength has saved her,
- 3 announce now to the people, 'Anyone who trembles with fear may turn back and leave Mount Gilead.' So twenty-two thousand men left, while ten thousand remained.
- 4 But the LORD said to Gideon, "There are still too many men. Take them down to the water, and I will sift them for you

-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 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을 같은지라
-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옆으로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 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더라

- there. If I say, 'This one shall go with you,' he shall go; but if I say,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he shall not go."
- 5 So Gideon took the men down to the water. There the LORD told him, "Separate those who lap the water with their tongues like a dog from those who kneel down to drink."
- 6 Three hundred men lapped with their hands to their mouths. All the rest got down on their knees to drink.
- 7 The LORD said to Gideon, "With the three hundred men that lapped I will save you and give the Midianites into your hands. Let all the other men go, each to his own place."
- 8 So Gideon sent the rest of the Israelites to their tents but kept the three hundred, who took over the provisions and trumpets of the others. Now the camp of Midian lay below him in the valley.
- 9 During that night the LORD said to Gideon, "Get up, go down against the camp, because I am going to give it into your hands."
- 10 If you are afraid to attack, go down to the camp with your servant Purah
- 11 and listen to what they are saying. Afterward, you will be encouraged to attack the camp." So he and Purah his servant went down to the outposts of the camp.
- 12 The Midianites, the Amalekites and all the other eastern peoples had settled in the valley, thick as locusts. Their camels could no more be counted than the sand on the seashore.
- 13 Gideon arrived just as a man was telling a friend his dream. "I had a dream," he was saying. "A round loaf of barley bread came tumbling into the Midianite camp. It struck the tent with such force that the tent overturned and collapsed."
- 14 His friend responded, "This can be nothing other than the sword of Gideon son of Joash, the Israelite. God has given the Midianites and the whole camp into his hands."

》》 기도 제목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소서.

거기 "하룻" 두려움이란 뜻으로, 겁이 많은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의 공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던 미디안 사람들을 의미한다.

기드온의 칼

본문 사사기 7:15~25 찬송가 260장

》 본문 해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속한 한 사람의 꿈 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삼백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었습니다(18절). 적진 근처에 도달한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은 당황하여 서로 칼을 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20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름을 받고 달려와서, 전투에 패해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쳤습니다. 그뒤 에브라임에 속한 지파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여,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엘을 사로잡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약을 사는 성도들도, 참된 영적인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 본문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끄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15 When Gideon heard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he worshiped God. He returned to the camp of Israel and called out, "Get up! The LORD has given the Midianite camp into your hands."
16 Dividing the three hundred men into three companies, he placed trumpets and empty jars in the hands of all of them, with torches inside.
17 "Watch me," he told them. "Follow my lead. When I get to the edge of the camp, do exactly as I do."
18 When I and all who are with me blow our trumpets, then from all around the camp blow yours and shout, 'For the LORD and for Gideon.'"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뿔
 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
 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1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
 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
 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
 여 스레라의 벤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박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
 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4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
 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
 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
 여 벤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렐과 스옴을 사로잡아 오
 렐은 오렐 바위에서 죽이고 스옴은 스옴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렐과 스옴
 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
 더라

19 Gideon and the hundred men with him reached the edge of the camp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watch, just after they had changed the guard. They blew their trumpets and broke the jars that were in their hands.
 20 The three companies blew the trumpets and smashed the jars. Grasping the torches in their left hands and holding in their right hands the trumpets they were to blow, they shouted, "A sword for the LORD and for Gideon!"
 21 While each man held his position around the camp, all the Midianites ran, crying out as they fled.
 22 When the three hundred trumpets sounded, the LORD caused the men throughout the camp to turn on each other with their swords. The army fled to Beth Shittah toward Zererah as far as the border of Abel Meholah near Tabbath.
 23 Israelites from Naphtali, Asher and all Manasseh were called out, and they pursued the Midianites.
 24 Gideon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hill country of Ephraim, saying, "Come down against the Midianites and seize the waters of the Jordan ahead of them as far as Beth Barah." So all the men of Ephraim were called out and they took the waters of the Jordan as far as Beth Barah.
 25 They also captured two of the Midianite leaders, Oreb and Zeeb. They killed Oreb at the rock of Oreb, and Zeeb at the winepress of Zeeb. They pursued the Midianites and brought the heads of Oreb and Zeeb to Gideon, who was by the Jordan.

》》 기도 제목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7:19 “이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경 초반 적이 깊이 잠든 후를 가리킬 것이다.

너희 살을 찢으리라

본문 사사기 8:1~9 찬송가 342장

>>> 본문 해설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늦게 전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브온에게 왜 자신들을 늦게 불렀는지 따지며 다투려고 했습니다(1절). 그러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늦게 동참했지만, 적군의 방백들을 사로잡아 죽인 그들의 공적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2절). 그 때에야 비로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비록 피곤하였으나, 그들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숙곳의 방백들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협조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누엘 사람들도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차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이 숙곳의 사람들에게 들가시와 찰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였고(7절), 브누엘 사람들의 망대를 헐 것을 선언하였습니다(9절).

>>> 성경 본문

- 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 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 3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렐과 스엌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 4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삼백 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 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 6 숙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 7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짚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 8 저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 9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 1 Now the Ephraimites asked Gide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Why didn't you call us when you went to fight Midian?" And they criticized him sharply.
- 2 But he answered them, "What have I accomplished compared to you? Aren't the gleanings of Ephraim's grapes better than the full grape harvest of Abiezer?"
- 3 God gave Oreb and Zeeb, the Midianite leaders, into your hands. What was I able to do compared to you?" At this, their resentment against him subsided.
- 4 Gideon and his three hundred men, exhausted yet keeping up the pursuit, came to the Jordan and crossed it.
- 5 He said to the men of Succoth, "Give my troops some bread; they are worn out, and I am still pursuing Zebah and Zalmunna, the kings of Midian."
- 6 But the officials of Succoth said, "Do you already have the hands of Zebah and Zalmunna in your possession? Why should we give bread to your troops?"
- 7 Then Gideon replied, "Just for that, when the LORD has given Zebah and Zalmunna into my hand, I will tear your flesh with desert thorns and briers."
- 8 From there he went up to Peniel and made the same request of them, but they answered as the men of Succoth had.
- 9 So he said to the men of Peniel, "When I return in triumph, I will tear down this tower."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손익계산을 따지지 말고 기꺼이 헌신하게 하소서.

8:2 "끝물" 추수가 끝난 후에 남아 있는 과실이나 곡물.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한 일이 기드온과 그의 부대가 처음 공격에 한 일보다 훨씬 크다고 칭찬한다.

들가시와 짚레로

본문 사사기 8:10~21 찬송가 350장

>>> 본문 해설

세바와 살문나는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갈골이란 곳에 와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온 진영을 격파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꼭꼭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한 300명만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의 진영을 격파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기드온은 자신이 약속한대로 숙곳에 이르러 방백들과 장로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들가시와 짚레로 징벌하였습니다. 또한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결국 기드온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다불에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을 처단하셨습니다.

>>> 성경 본문

- 10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십이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오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에 있더라
- 11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욱behah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 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 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 14 숙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매 그가 숙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칠십칠 명을 그에게 적어

- 10 Now Zebah and Zalmunna were in Karkor with a force of about fifteen thousand men, all that were left of the armies of the eastern peoples; a hundred and twenty thousand swordsmen had fallen.
- 11 Gideon went up by the route of the nomads east of Nobah and Jogbehah and fell upon the unsuspecting army.
- 12 Zebah and Zalmunna, the two kings of Midian, fled, but he pursued them and captured them, routing their entire army.
- 13 Gideon son of Joash then returned from the battle by the Pass of Heres.
- 14 He caught a young man of Succoth and questioned him, and the young

준지라

- 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 16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찢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 17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 18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 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 19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 20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 21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man wrote down for him the names of the seventy-seven officials of Succoth, the elders of the town.

- 15 Then Gideon came and said to the men of Succoth, "Here are Zebah and Zalmunna, about whom you taunted me by saying, 'Do you already have the hands of Zebah and Zalmunna in your possession? Why should we give bread to your exhausted men?'"
- 16 He took the elders of the town and taught the men of Succoth a lesson by punishing them with desert thorns and briers.
- 17 He also pulled down the tower of Peniel and killed the men of the town.
- 18 Then he asked Zebah and Zalmunna, "What kind of men did you kill at Tabor?" "Men like you," they answered, "each one with the bearing of a prince."
- 19 Gideon replied, "Those were my brothers, the sons of my own mother.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f you had spared their lives, I would not kill you."
- 20 Turning to Jether, his oldest son, he said, "Kill them!" But Jether did not draw his sword, because he was only a boy and was afraid.
- 21 Zebah and Zalmunna said, "Come, do it yourself. 'As is the man, so is his strength.'" So Gideon stepped forward and killed them, and took the ornaments off their camels' necks.

》》》 기도 제목

기드온의 칼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소서.

8:21 “네가 일어나” 어린 소년의 손에 죽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아내가 많으므로

본문 사사기 8:22~35 찬송가 274장

>>> 본문 해설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 자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왕이 되어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22절).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과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23절).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귀고리들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 에봇은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27절). 이후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 죽었고, 그가 여러 명의 아내와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자식들은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33~34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귀한 신앙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성경 본문

22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겹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22 The Israelites said to Gideon, "Rule over us--you, your son and your grandson--because you have saved us out of the hand of Midian."

23 But Gideon told them, "I will not rule over you, nor will my son rule over you. The LORD will rule over you."

24 And he said, "I do have one request, that each of you give me an earring from your share of the plunder." (It was the custom of the Ishmaelites to wear gold earrings.)

25 They answered, "We'll be glad to give them." So they spread out a garment, and each man threw a ring from his plunder onto it.

26 The weight of the gold rings he asked for came to seventeen hundred shekels, not counting the ornaments,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러댈 사슬이 있었더라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31 세겔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the pendants and the purple garments worn by the kings of Midian or the chains that were on their camels' necks.

27 Gideon made the gold into an ephod, which he placed in Ophrah, his town. All Israel prostituted themselves by worshiping it there, and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his family.

28 Thus Midian was subdued before the Israelites and did not raise its head again. During Gideon's lifetime, the land enjoyed peace forty years.

29 Jerub-Baal son of Joash went back home to live.

30 He had seventy sons of his own, for he had many wives.

31 His concubine, who lived in Shechem, also bore him a son, whom he named Abimelech.

32 Gideon son of Joash died at a good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his father Joash in Ophrah of the Abiezrites.

33 No sooner had Gideon died than the Israelites again prostituted themselves to the Baals. They set up Baal-Berith as their god and

34 did not remember the LORD their God, who had rescued them from the hands of all their enemies on every side.

35 They also failed to show kindness to the family of Jerub-Baal (that is, Gideon) for all the good things he had done for them.

》》 기도 제목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게 하소서.

8:23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왕정 수립을 여호와와 통치를 거절하는 것으로 여겨 거부하였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기의 주제이다.

방탕하고 경박한

본문 사사기 9:1~6 찬송가 146장

》》 본문 해설

기드온(여룹바알)의 아들 중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세겜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과 조부의 온 가족들을 불러 놓고,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삼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1절). 그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한꺼번에 통치하는 것보다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더 좋을 것이라고 호소하였고, 무엇보다 자신이 세겜 출신의 사람임을 강조하였습니다(2절). 그 결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현혹되어 그에게 바알브릿 신전의 은 칠십 개를 주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불량배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 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놓고 다 쳐서 멸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6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5절).

》》 성경 본문

- 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 2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 3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 4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 5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 6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 1 Abimelech son of Jerub-Baal went to his mother's brothers in Shechem and said to them and to all his mother's clan,
- 2 "Ask all the citizens of Shechem, 'Which is better for you: to have all seventy of Jerub-Baal's sons rule over you, or just one man?' Remember, I am your flesh and blood."
- 3 When the brothers repeated all this to the citizens of Shechem, they were inclined to follow Abimelech, for they said, "He is our brother."
- 4 They gave him seventy shekels of silver from the temple of Baal-Berith, and Abimelech used it to hire reckless adventurers, who became his followers.
- 5 He went to his father's home in Ophrah and on one stone murdered his seventy brothers, the sons of Jerub-Baal. But Jotham, the youngest son of Jerub-Baal, escaped by hiding.
- 6 Then all the citizens of Shechem and Beth Millo gathered beside the great tree at the pillar in Shechem to crown Abimelech king.

》》 기도 제목

돈과 권력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추구하게 하소서.

95 "밀로" '채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로 벽이나 큰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아래에 흙을 채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망대의 의미로 생각된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본문 사사기 9:7~21 찬송가 434장

>>> 본문 해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비유를 통해 선포하였습니다. 그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지만 감람나무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며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나무들은 또 무화과 나무를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무화과나무 역시 겸손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결과는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결국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기를 요청하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에게 자신의 그늘로 오라고 협박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나무들의 어리석음과 가시나무의 교만을 드러낸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는 왕의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아비멜렉의 교만과 죄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자격 없고 교만한 자를 왕으로 삼는 것도 죄악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만을 높이며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 성경 본문

- 7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 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 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 10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 7 When Jotham was told about this, he climbed up on the top of Mount Gerizim and shouted to them, "Listen to me, citizens of Shechem, so that God may listen to you.
- 8 One day the trees went out to anoint a king for themselves. They said to the olive tree, 'Be our king.'
- 9 "But the olive tree answered, 'Should I give up my oil, by which both gods and men are honored, to hold sway over the trees?'
- 10 "Next, the trees said to the fig tree, 'Come and be our king.'
- 11 "But the fig tree replied, 'Should I give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나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나
 17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거늘
 18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집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19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집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집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21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up my fruit, so good and sweet, to hold sway over the trees?"
 12 "Then the trees said to the vine, 'Come and be our king.'
 13 "But the vine answered, 'Should I give up my wine, which cheers both gods and men, to hold sway over the trees?"
 14 "Finally all the trees said to the thornbush, 'Come and be our king.'
 15 "The thornbush said to the trees, 'If you really want to anoint me king over you, come and take refuge in my shade; but if not, then let fire come out of the thornbush and consume the cedars of Lebanon!"
 16 "Now if you have acted honorably and in good faith when you made Abimelech king, and if you have been fair to Jerub-Baal and his family, and if you have treated him as he deserves-
 17 and to think that my father fought for you, risked his life to rescue you from the hand of Midian
 18 (but today you have revolted against my father's family, murdered his seventy sons on a single stone, and made Abimelech, the son of his slave girl, king over the citizens of Shechem because he is your brother)-
 19 if then you have acted honorably and in good faith toward Jerub-Baal and his family today, may Abimelech be your joy, and may you be his, too!
 20 But if you have not, let fire come out from Abimelech and consume you, citizens of Shechem and Beth Millo, and let fire come out from you, citizens of Shechem and Beth Millo, and consume Abimelech!"
 21 Then Jotham fled, escaping to Beer, and he lived there because he was afraid of his brother Abimelech.

》》 기도 제목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913 “하나님” 당시 신들이 인간들처럼 포도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삼년에

본문 사사기 9:22~33 찬송가 342장

>>> 본문 해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삼년이 되었을 때,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요담의 예언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도 내려졌습니다(23절). 그들은 서로 불리할 때는 협력하는 사이였지만, 한순간에 쫓고 쫓기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잠시 동안 잘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들끼리 물고 뜯어 모두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그들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한편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합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8절) 라고 말하며 세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가알의 말에 세겜 사람들은 움직였고, 결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기드온 집안을 배반했던 세겜이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과 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가알, 그리고 탐욕을 따라 움직이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요일 5:4).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할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방식을 쫓는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성경 본문

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삼 년에

23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4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22 After Abimelech had governed Israel three years,

23 God sent an evil spirit between Abimelech and the citizens of Shechem, who acted treacherously against Abimelech.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25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
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
렉에게 알리니라
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27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밭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
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
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
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9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
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30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31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
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32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
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33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
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
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
소서 하니

24 God did this in order that the crime
against Jerub-Baal's seventy sons, the
shedding of their blood, might be
avenged on their brother Abimelech
and on the citizens of Shechem, who
had helped him murder his brothers.
25 In opposition to him these citizens of
Shechem set men on the hilltops to
ambush and rob everyone who
passed by, and this was reported to
Abimelech.
26 Now Gaal son of Ebed moved with his
brothers into Shechem, and its
citizens put their confidence in him.
27 After they had gone out into the fields
and gathered the grapes and trodden
them, they held a festival in the
temple of their god. While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they cursed
Abimelech.
28 Then Gaal son of Ebed said, "Who is
Abimelech, and who is Shechem, that
we should be subject to him? Isn't he
Jerub-Baal's son, and isn't Zebul his
deputy? Serve the men of Hamor,
Shechem's father! Why should we
serve Abimelech?
29 If only this people were under my
command! Then I would get rid of
him. I would say to Abimelech, 'Call
out your whole army!'"
30 When Zebul the governor of the city
heard what Gaal son of Ebed said, he
was very angry.
31 Under cover he sent messengers to
Abimelech, saying, "Gaal son of Ebed
and his brothers have come to
Shechem and are stirring up the city
against you.
32 Now then, during the night you and
your men should come and lie in wait
in the fields.
33 In the morning at sunrise, advance
against the city. When Gaal and his
men come out against you, do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기는 오늘이 삶
이 되게 하소서.

9:22 "이스라엘" 아비멜렉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써 주로 세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본문 사사기 9:34~45 찬송가 436장

>>> 본문 해설

세겜의 배반에 대해 아비멜렉은 무자비하게 대응합니다. 세겜의 장관 스불이 그들의 배반을 알리자, 아비멜렉은 곧바로 백성과 더불어 밤에 네 때로 나누어 매복합니다(34절). 결국 가알 일행은 스불의 배신과 아비멜렉의 기습 공격으로 전멸당하고 아비멜렉은 승리를 거둡니다(44절). 하지만 세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그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기서 소금을 땅에 뿌리는 것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다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미래에도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소금까지 뿌린 것은 세겜을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다른 자들도 반역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잔혹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 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갈 5:16~17).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아비멜렉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 성경 본문

3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침을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36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37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 때는

34 So Abimelech and all his troops set out by night and took up concealed positions near Shechem in four companies.
35 Now Gaal son of Ebed had gone out and was standing at the entrance to the city gate just as Abimelech and his soldiers came out from their hiding place.
36 When Gaal saw them, he said to Zebul, "Look, people are coming down from the tops of the mountains!" Zebul replied, "You mistake the shadows of the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 38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 39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 40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 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 42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 43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 44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 45 아비멜렉이 그 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mountains for men."

- 37 But Gaal spoke up again: "Look, people are coming down from the center of the land, and a company is coming from the direction of the soothsayers' tree."
- 38 Then Zebul said to him, "Where is your big talk now, you who said, 'Who is Abimelech that we should be subject to him?' Aren't these the men you ridiculed? Go out and fight them!"
- 39 So Gaal led out the citizens of Shechem and fought Abimelech.
- 40 Abimelech chased him, and many fell wounded in the flight--all the way to the entrance to the gate.
- 41 Abimelech stayed in Arumah, and Zebul drove Gaal and his brothers out of Shechem.
- 42 The next day the people of Shechem went out to the fields, and this was reported to Abimelech.
- 43 So he took his men, divided them into three companies and set an ambush in the fields. When he saw the people coming out of the city, he rose to attack them.
- 44 Abimelech and the companies with him rushed forward to a position at the entrance to the city gate. Then two companies rushed upon those in the fields and struck them down.
- 45 All that day Abimelech pressed his attack against the city until he had captured it and killed its people. Then he destroyed the city and scattered salt over it.

» 기도 제목

내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937 "프으느님 상수리나무" 바일브릿 신전으로 연결된 길에 심어놓은 신성한 나무였을 것이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본문 사사기 9:46~57 찬송가 449장

>>> 본문 해설

세겜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모인다는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려집니다(47절). 아비멜렉은 망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는 직접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어 보루 위에 쌓고 불을 냅니다. 여기서 '보루'는 제의적인 역할을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마지막 도끼에 나선 이들에게도 아비멜렉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남녀 천여 명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49절). 이러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은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부르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약 1:15).

이후 50~57절의 말씀은 아비멜렉의 악행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분노의 칼날을 세우고 세겜 동쪽에 있는 데베스로 향합니다. 아비멜렉은 성읍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망대 위로 몰아 불태우려 합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머리를 깨뜨립니다(53절). 당시 사회에서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장군의 수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치욕을 피하려고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요청합니다(54절). 강력한 무기와 힘을 자랑하던 그가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것은,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로써 요담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죽음과 세겜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었습니다(56~57절).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고후 5:10).

》》 성경 본문

46 세겔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47 세겔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48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49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엷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겔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자가 약 천 명이었더라
 50 아비멜렉이 테베스에 가서 테베스에 맞서 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51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자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 한 여인이 뱃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4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55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56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칠십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 또 세겔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46 On hearing this, the citizens in the tower of Shechem went into the stronghold of the temple of El-Berith.
 47 When Abimelech heard that they had assembled there,
 48 he and all his men went up Mount Zalmon. He took an ax and cut off some branches, which he lifted to his shoulders. He ordered the men with him, "Quick! Do what you have seen me do!"
 49 o all the men cut branches and followed Abimelech. They piled them against the stronghold and set it on fire over the people inside. So all the people in the tower of Shechem, about a thousand men and women, also died.
 50 Next Abimelech went to Thebez and besieged it and captured it.
 51 Inside the city, however, was a strong tower, to which all the men and women--all the people of the city--fled. They locked themselves in and climbed up on the tower roof.
 52 Abimelech went to the tower and stormed it. But as he approached the entrance to the tower to set it on fire,
 53 a woman dropped an upper millstone on his head and cracked his skull.
 54 Hurriedly he called to his armor-bearer, "Draw your sword and kill me, so that they can't say, 'A woman killed him.'" So his servant ran him through, and he died.
 55 When the Israelites saw that Abimelech was dead, they went home.
 56 Thus God repaid the wickedness that Abimelech had done to his father by murdering his seventy brothers.
 57 God also made the men of Shechem pay for all their wickedness. The curse of Jotham son of Jerub-Baal came on them.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9:53 "한 여인" 남자들이 활, 화살, 창과 같은 무기를 사용한 반면 여자들은 가까이 접근하는 자들에게 무거운 돌들을 던졌으로써, 망대를 수비하였다.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본문 사사기 10:1~18 찬송가 527장

>>> 본문 해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잇사갈 사람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이 각각 23년과 22년간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야일에게 어린 나귀 30마리, 그리고 30개의 성읍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풍요롭고 안정적 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잠시 잊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버리고 더 이상 섬기지 않는(6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18년 동안 넘기십니다(8절). '악을 행함-압제당함-곤고함'이 반복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너희들이 섬긴 신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보며 마음에 근심하고 계셨습니다(16절). 이것이 못난 자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호 6:1).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모습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 모든 죄의 싹을 끊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시 34:18). 하나님은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를 마음에 새기십니다.

>>> 성경 본문

- 1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밧에 거주하면서
- 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밧에 장사되었더라

- 1 After the time of Abimelech a man of Issachar, Tola son of Puah, the son of Dodo, rose to save Israel. He lived in Shamir,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 2 He led Israel twenty-three years; then he

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을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아일이라 부르더라
 5 야일이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8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찢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died, and was buried in Shamir.
 3 He was followed by Jair of Gilead, who led Israel twenty-two years.
 4 He had thirty sons, who rode thirty donkeys. They controlled thirty towns in Gilead, which to this day are called Havvoth Jair.
 5 When Jair died, he was buried in Kamon.
 6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y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oreths, and the gods of Aram, the gods of Sidon, the gods of Moab, the gods of the Ammonites and the gods of the Philistines. And because the Israelites forsook the LORD and no longer served him,
 7 he became angry with them.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the Ammonites,
 8 who that year shattered and crushed them. For eighteen years they oppressed all the Israelites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in Gilead, the land of the Amorites.
 9 The Ammonites also crossed the Jordan to fight against Judah, Benjamin and the house of Ephraim; and Israel was in great distress.
 10 The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the LORD, "We have sinned against you, forsaking our God and serving the Baals."
 11 The LORD replied, "When the Egyptians, the Amorites, the Ammonites, the Philistines, the Sidonians, the Amalekites and the Maonites oppressed you and you cried to me for help, did I not save you from their hands?
 12 But you have forsaken me and served other gods, so I will no longer save you.
 13 Go and cry out to the gods you have chosen. Let them save you when you are in trouble!"
 15 But the Israelites said to the LORD, "We have sinned. Do with us whatever you think best, but please rescue us now."
 16 Then they got rid of the foreign gods among them and served the LORD. And he could bear Israel's misery no longer.
 17 When the Ammonites were called to arms and camped in Gilead, the Israelites assembled and camped at Mizpah.
 18 The leaders of the people of Gilead said to each other, "Whoever will launch the attack against the Ammonites will be the head of all those living in Gilead."

>>> 기도 제목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여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1) 야일의 동네

10:6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대중적인 신은 다곤과 바알세뱀으로 보인다. 다곤은 히브리어로 '곡식'이란 뜻으로, 풍요의 신이다. 바알세뱀은 '파리의 주'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섬기는 자들이 바알세불(왕자 바알)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바꿔 바알 송배를 조롱하는데 사용한 명칭이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본문 사사기 11:1~11 찬송가 380장

》》 본문 해설

성경은 입다를 길르앗 사람이며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길르앗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1절). 이러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었기에, 길르앗의 아들들은 그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들판으로 도망합니다. 그는 그 곳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자들과 함께 어울립니다(3절). 이렇듯 그의 출신배경만으로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인 그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합니다. 그 때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나아와 그에게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6절). 결국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입다를 길르앗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사 55:8).

» 성경 본문

- 1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 2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 3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돌 땅에 거주하며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 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돌 땅에 가서
- 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 8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 1 Jephthah the Gileadite was a mighty warrior. His father was Gilead; his mother was a prostitute.
- 2 Gilead's wife also bore him sons, and when they were grown up, they drove Jephthah away. "You are not going to get any inheritance in our family," they said, "because you are the son of another woman."
- 3 So Jephthah fled from his brothers and settled in the land of Tob, where a group of adventurers gathered around him and followed him.
- 4 Some time later, when the Ammonites made war on Israel,
- 5 the elders of Gilead went to get Jephthah from the land of Tob.
- 6 "Come," they said, "be our commander, so we can fight the Ammonites."
- 7 Jephthah said to them, "Didn't you hate me and drive me from my father's house? Why do you come to me now, when you're in trouble?"
- 8 The elders of Gilead said to him, "Nevertheless, we are turning to you now; come with us to fight the Ammonites, and you will be our head over all who live in Gilead."
- 9 Jephthah answered, "Suppose you take me back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ives them to me--will I really be your head?"
- 10 The elders of Gilead replied, "The LORD is our witness; we will certainly do as you say."
- 11 So Jephthah went with the elders of Gilead, and the people made him head and commander over them. And he repeated all his words before the LORD in Mizpah.

» 기도 제목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이 삶이 되게 하소서.

11:1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사회적으로 천민이었다.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본문 사사기 11:12~28 찬송가 135장

>>> 본문 해설

암몬 왕은 이스라엘에게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돌려달라 요청합니다(13절). 입다는 사자를 보내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며 암몬 왕과 협상을 벌입니다. 이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여러 나라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거쳐가려 했지만 어느 나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암몬 역시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싸워 쟁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 땅을 돌려달라는 암몬 왕의 요구는 이스라엘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왕에게 불필요한 싸움을 중지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합니다. 더욱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27절)라고 말하며, 입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암몬 왕처럼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고 후 4:5).

>>> 성경 본문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 하니라

12 Then Jephthah sent messengers to the Ammonite king with the question: "What do you have against us that you have attacked our country?"

13 The king of the Ammonites answered Jephthah's messengers, "When Israel came up out of Egypt, they took away my land from the Arnon to the Jabbok, all the way to the Jordan. Now give it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18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른는 저쪽에 진 쳤고 아른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앞 골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20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22 아른논에서부터 암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2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나
 24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심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른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삼백 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back peaceably."
 14 Jephthah sent back messengers to the Ammonite king,
 15 saying: "This is what Jephthah says: Israel did not take the land of Moab or the land of the Ammonites.
 16 But when they came up out of Egypt, Israel went through the desert to the Red Sea and on to Kadesh.
 17 Then Israel sent messengers to the king of Edom, saying, 'Give us permission to go through your country,' but the king of Edom would not listen. They sent also to the king of Moab, and he refused. So Israel stayed at Kadesh.
 18 "Next they traveled through the desert, skirted the lands of Edom and Moab, passed along the eastern side of the country of Moab, and camped on the other side of the Arnon. They did not enter the territory of Moab, for the Arnon was its border.
 19 "Then Israel sent messengers to Sihon king of the Amorites, who ruled in Heshbon, and said to him, 'Let us pass through your country to our own place.'
 20 Sihon, however, did not trust Israel to pass through his territory. He mustered all his men and encamped at Jahaz and fought with Israel.
 21 "Then the LORD, the God of Israel, gave Sihon and all his men into Israel's hands, and they defeated them. Israel took over all the land of the Amorites who lived in that country,
 22 capturing all of it from the Arnon to the Jabbok and from the desert to the Jordan.
 23 "Now since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s driven the Amorites out before his people Israel, what right have you to take it over?
 24 Will you not take what your god Chemosh gives you? Likewise, whatever the LORD our God has given us, we will possess.
 25 Are you better than Balak son of Zippor, king of Moab? Did he ever quarrel with Israel or fight with them?
 26 For three hundred years Israel occupied Heshbon, Aroer, the surrounding settlements and all the towns along the Arnon. Why didn't you retake them during that time?
 27 I have not wronged you, but you are doing me wrong by waging war against me. Let the LORD, the Judge, decide the dispute this day between the Israelites and the Ammonites."
 28 The king of Ammon, however, paid no attention to the message Jephthah sent him.

》》 기도 제목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평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실천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

11: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단순히 군사적 개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보았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본문 사사기 11:29~40 찬송가 314장

>>> 본문 해설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29절). 그런데 그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똥한 서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서원은 그만큼 싸움에 결연하게 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망각했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이방 종교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때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살전 5:22).

이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무남독녀가 춤추며 나오며 그를 영접합니다. 입다는 강한 슬픔의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으며' (35절)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딸이 두 달간 친구들과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오자 입다는 서원대로 행합니다. 이렇듯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서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그의 백성들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요일 5:4).

>>> 성경 본문

29 이에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

29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Jephthah. He crossed Gilead and Manasseh, passed through Mizpah of Gilead, and from there he advanced against the Ammonites.

30 And Jephthah made a vow to the LORD: "If you give the Ammonites into my hands,

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뮌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37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38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이 되어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31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triumph from the Ammonites will be the LORD's, and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32 Then Jephthah went over to fight the Ammonites, and the LORD gave them into his hands.

33 He devastated twenty towns from Aroer to the vicinity of Minnith, as far as Abel Keramim. Thus Israel subdued Ammon.

34 When Jephthah returned to his home in Mizpah, who should come out to meet him but his daughter, dancing to the sound of tambourines! She was an only child. Except for her he had neither son nor daughter.

35 When he saw her, he tore his clothes and cried, "Oh! My daughter! You have made me miserable and wretched, because I have made a vow to the LORD that I cannot break."

36 "My father," she replied, "you have given your word to the LORD. Do to me just as you promised, now that the LORD has avenged you of your enemies, the Ammonites."

37 But grant me this one request," she said. "Give me two months to roam the hills and weep with my friends, because I will never marry."

38 "You may go," he said. And he let her go for two months. She and the girls went into the hills and wept because she would never m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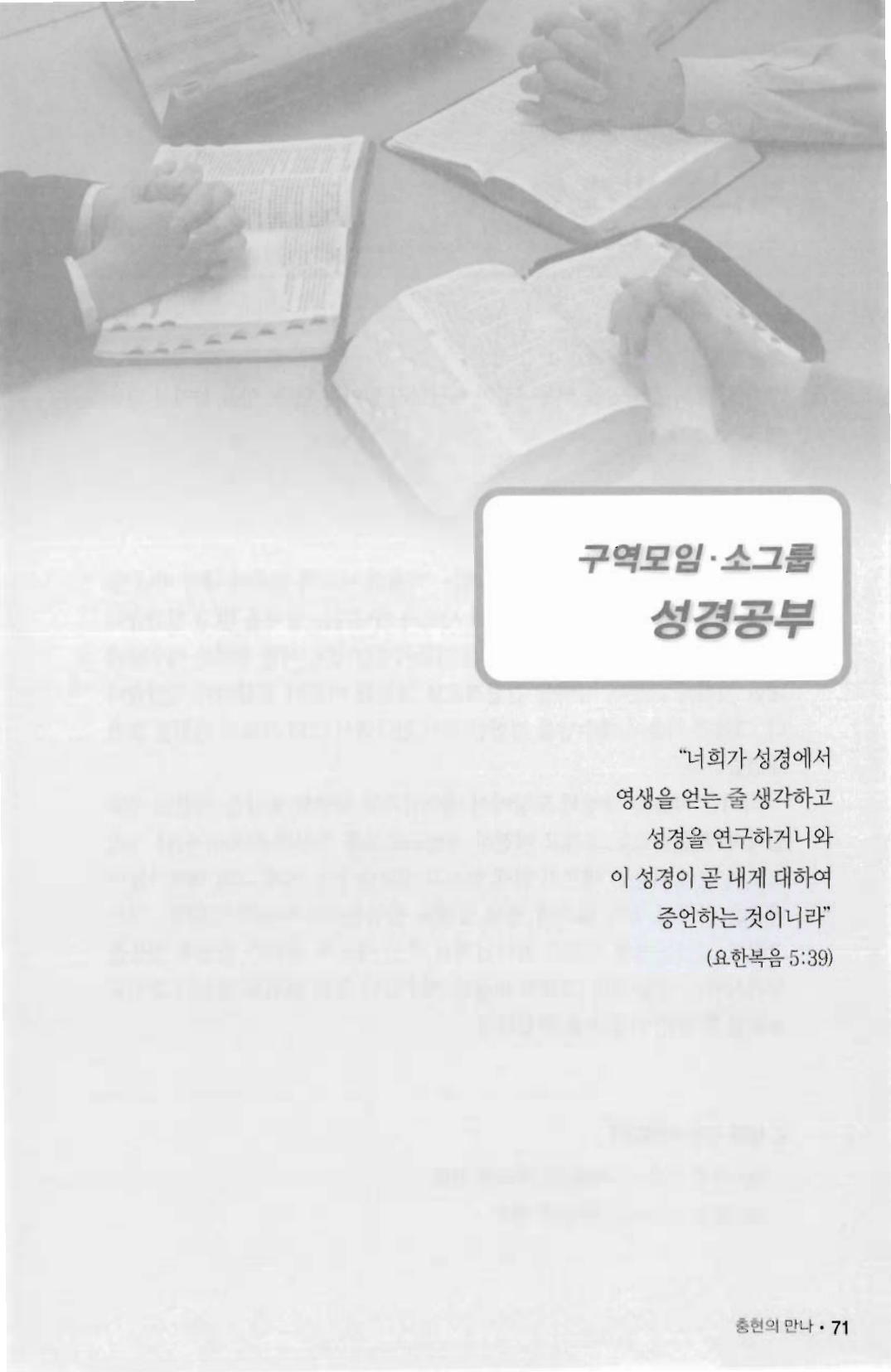
39 After the two months, she returned to her father and he did to her as he had vowed. And she was a virgin. From this comes the Israelite custom

40 that each year the young women of Israel go out for four days to commemorate the daughter of Jephthah the Gileadite.

>>> 기도 제목

헛된 생각과 사상에 붙잡힌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만이 드러나는데 내가 사용되도록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1137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여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구역모임·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10월 첫째 주 1과

비난을 받게 될 때

본문 고린도후서 10:7~11 찬송가 288장, 291장

학습 목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터무니없이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삶에서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10:7~11의 전체 주제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비난'입니다.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대적자들은 유대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서 그의 사도적 권위를 흠집 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사도입니다(행 9:1~10).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교회를 자신의 사육이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약하고 힘이 없으며 연설 능력도 떨어진다고 비난하고(10절),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적 권위가 분명히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훈계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a) 고후 10:7~8 바울의 사도권 변호
- (b) 고후 10:9~11 바울의 경고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바울의 사도권 변호(고후 10:7~8)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의 사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무시하라고 부추겼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썼던 편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세우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음을 변호합니다.

Q. 바울의 사도적 권위(권세)는 누가 위임한 것입니까?(8절)

(b) 바울의 경고(고후 10:9~11)

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연설 능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당시 헬라인의 수사학과 철학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대적자들을 향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였고(고후 13:2), 자신의 관용적인 경고가 효과가 없을 시에는 다음 방문 때에 사도권을 행사하여 그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Q.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까?(10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다른 사람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을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를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외울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후 10:8)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0월 둘째 주 2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본문 고린도후서 10:12~18 찬송가 314장, 397장

학습 목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10:12~18의 전체 주제는 '겸손과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선함만을 입증하려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적자들을 비판했습니다(고후 10:2).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그들이 교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은 대적자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지혜롭다고 자처하면서도 대적자들의 가식적인 자랑이 스스로 지혜 없음을 드러내는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17~18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회업적을 주 안에서 자랑함으로써 이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a) 고후 10:12~16 겸손
- (b) 고후 10:17~18 자랑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겸손(고후 10:12~16)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기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과 자랑을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다른 이들의 업적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Q. 바울은 자기 사역을 자랑하는 기준을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14절)

(b) 자랑(고후 10:17~18)

바울은 자신의 목회적 경력과 업적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고후 11:30~31). 하지만 그는 고린도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랑으로 고린도교회에 침투해 있는 대적자들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고후 11:12).

Q. 자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17~18절)

4. 본문 적용하기

Q.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당신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0월 셋째 주 3과

어리석음에서 떠나라

본문 고린도후서 11:1~6 찬송가 360장, 357장

학습 목표

우리는 세상의 사조와 풍토에 매료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11:1~6의 전체 주제는 ‘거짓 사도들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반복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1절). 하지만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달변에 속아 그들의 거짓된 논리 앞에 무너지는 모습에, 그는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온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수사학과 언변술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다른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전문적인 연설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5~6절), 투박하게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자신이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a) 고후 11:1~4 거짓된 사도를 경계
- (b) 고후 11:5~6 진실한 사도를 인정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거짓된 사도를 경계(고후 11:1~4)

당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도록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사학과 논리학을 바탕으로 한 연설로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시키기 보다는, 연설하는 거짓 사도들 자신에게로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영광은 다른 것들을 경계하도록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Q.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4절)

(b) 진실한 사도를 인정(고후 11:5~6)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만한 언변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헬라식의 연설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평범한 연설이 그의 어리석음을 대변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비난 앞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연설과 언변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장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고전 1:23). 그는 자신이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사도로 인정할 것을 호소합니다.

Q.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5~6절)

4. 본문 적용하기

Q. 세상이 요구하는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후 11:2)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0월 넷째 주 **4과**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본문 고린도후서 11:7~15 찬송가 211장, 212장

학습 목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고린도후서 11:7~15의 전체 주제는 '값없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유능한 연사일수록 많은 액수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상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교회에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모금하는 연보를 트집삼아 그의 사도성과 권위를 흠집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짓 사도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린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공격하여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탄에게 속한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경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 (a) 고후 11:7~12 하나님의 일꾼
- (b) 고후 11:13~15 사탄의 일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하나님의 일꾼(고후 11:7~12)

바울은 자신이 금전적인 보상 없이 복음을 증거한 일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고후 12:16~18). 그가 이 일을 강조한 이유는,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안녕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설립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교인들의 영적인 순결과 안녕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Q. 바울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음을 자랑합니까?(10절)

(b) 사탄의 일꾼(고후 11:13~15)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 (1) 참된 설교자와 교사들을 비방한다는 점, (2) 자신들의 외적인 것을 자랑한다는 점, (3)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 (4)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을 전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사탄의 일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일꾼이었습니다(고후 4:4). 결국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Q. 사탄의 일꾼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15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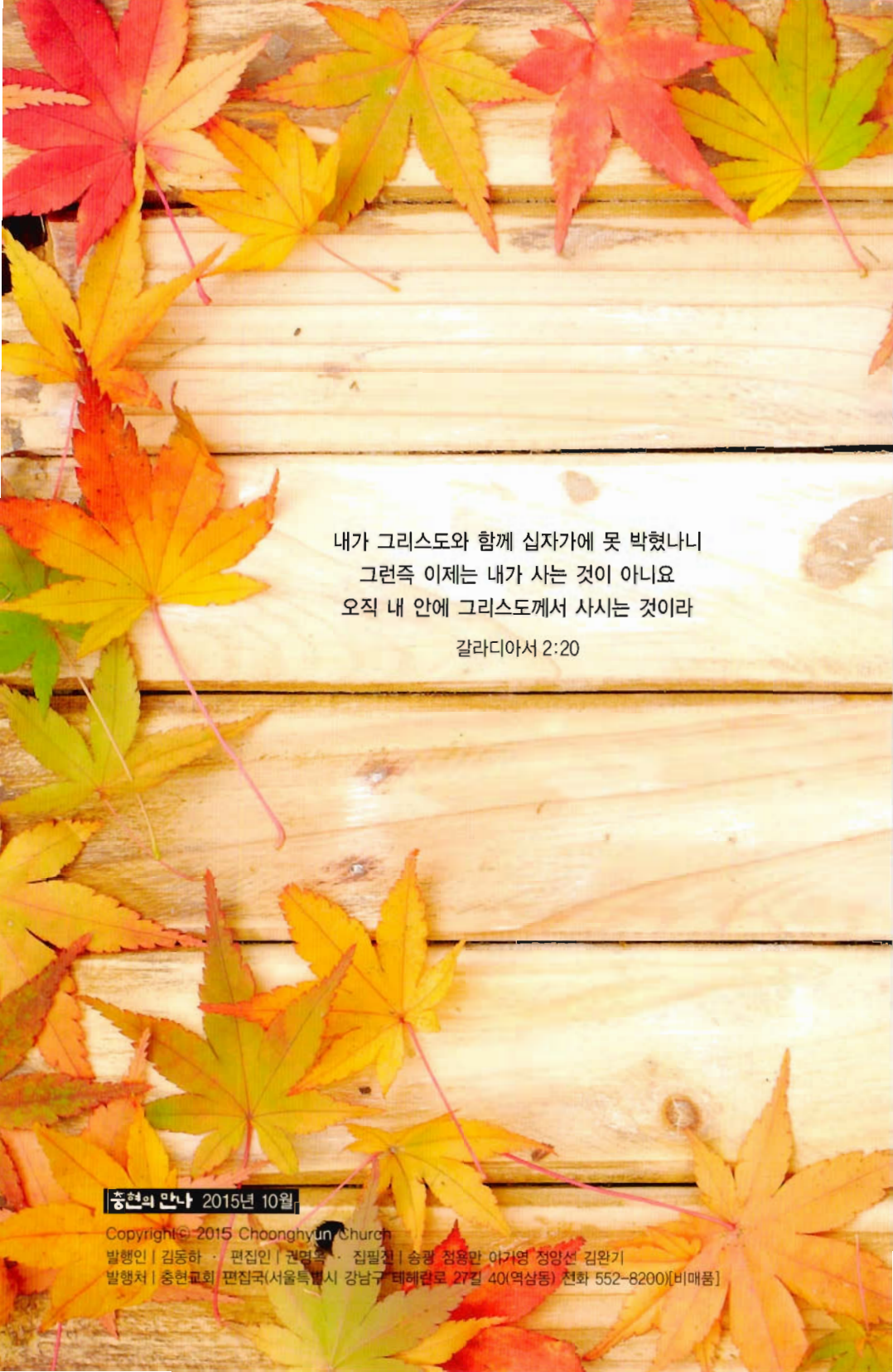
Q. 당신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을 어떻게 보상받기 원합니까? 이 보상을 받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 나눔

외울 말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5)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안나 2015년 10월

Copyright©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권영록 · 집필진 | 송광 침용환 이기영 정양선 김완기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